

■ 語文論文

‘아니요, 아니에요’의 敬語法과 文法的 特徵

鄭 熙 昌

(國立國語院 學藝研究官)

要約 및 抄錄

‘아니요’는 ‘아니’에 ‘요’가 결합하여 生成된 말로 ‘해요체’ 이상으로 쓰이므로 ‘요’가 드러난 ‘아니요’로 表記하는 것이 文法 記述를 簡潔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아니요’는 敬語法의 等級이 동일한 ‘아니에요’와의 관련성을 捕捉할 수 있다. ‘아니요’와 ‘아니에요’는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아니요’는 感歎詞로 文法化되어 단순히 否定만을 표시하는 데 비해 ‘아니에요’는 ‘X는 Y가 아니-’의 統辭 構造를 통해 좀 더 細部的인 내용을 明示한다. 이러한 통사 구조에는 주로 話者와 관련된 情報가 담기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화자의 일정한 見解로 解釋되어 단순한 가부의 대답이 아닌 否定 表現에 적합하게 쓰인다. 국어에는 감탄사로 文法化한 ‘아니, 아니요’의 範疇과 ‘아니다’의 活用形인 ‘아니다, 아니야, 아닐세, 아니네, 아니지, 아닐걸, 아닙니다……’의 두 範疇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핵심어 : 敬語法, 表記, 否定 表現, 文法化, 感歎詞, 統辭 構造, 情報

I. 問題 提起

‘에’에 상대되는 말인 ‘아니요’에는 세 가지 논의거리가 존재한다. 첫째는 ‘아니요’의 表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아니요’의 敬語法上的 등급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해요체에 속하는 ‘아니에요’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아니요’에 대한 언급은 國語辭典의 편찬 과정에서 먼저 논의된 바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예’에 상대되는 말의 표기를 ‘아니요’로 결정하고 ‘하오체’보다 높은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國立國語研究院 2000:11)

‘아니요’의 敬語法上的 등급은 ‘아니오’의 표기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아니오’에는 ‘하오체’가 아니라는 것과, ‘아니’에 ‘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아니요’가 ‘예’에 상대되는 말이므로 敬語法上的 등급 또한 ‘예’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니요’가 ‘하오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니요’로 표기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의 상대어는 ‘아니요’이든 ‘아니오’이든 共時的으로는 感歎詞이고 文法화된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따라서 ‘아니오’로 표기하더라도 이미 ‘하오체’와의 관계가 斷切되었다면 ‘예’의 相對語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니요’와 ‘아니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아니+-오’와 感歎詞에 補助詞가 결합하는 ‘아니+요’의 중 어느 것이 국어의 形態論的 사실에 좀 더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오’와 ‘아니요’ 중 어느 쪽이 敬語法의 체계를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데 유리한가 하는 것이다.

한편 ‘아니요’가 해오체에 속한다고 하면 역시 해오체에 속하는 ‘아니예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아니요’와 ‘아니예요’는 다른 사람의 물음에 否定하여 대답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아울러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는 ‘아니, 아니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話者が 他人의 의견을 부정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과 용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아니요’의 표기와 경어법상의 등급을 확인하고 ‘아니예요’와의 관계를 논의한 다음 ‘아니요’와 ‘아니예요’의 문법적인 차이가 ‘아니’와 ‘아니야’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아니요/아니오’의 표기와 경어법상의 등급은 무엇인가?

ㄴ. ‘아니요, 아니예요’의 문법적인 기능과 용법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ㄷ. ‘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의 기능과 관계는 무엇인가?

II. ‘아니요’의 표기 문제

‘아니요’는 ‘아니’에 ‘요’가 결합해서 형성된 말이다. ‘응’에 상대되는 말 ‘아니’에 聽者를 높이는 뜻이 있는 ‘요’가 결합함으로써 ‘아니요’를 형성하고 ‘예’의 상대어로 쓰인다.

- (2) ㄱ. 응 → 예
 ㄴ. 아니 → 아니요

‘아니’에 ‘요’가 결합해서 ‘아니요’가 되었다면 표기가 ‘아니요’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송창선(2000)에서는 감탄사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은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고 前提하고 ‘아니야’가 ‘아니--+어’에서 비롯한 것처럼 ‘아니--+오’에서 비롯한 ‘아니오’가 타당한 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아니-’의 어간에 相對敬語法을 나타내는 終結 語尾가 결합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존재한다.

- (3) ㄱ. 아니--+어 → 아니야
 ㄴ. 아니--+오 → 아니오
 ㄷ. 아니--+네 → 아니네
 ㄹ. 아니--+습니다 →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의 ‘아니요’는 위의 構成 方式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아니요’가 ‘아니야, 아니오, 아니네’ 등과 구성 방식이 다른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구성 방식의 차이를 根據로 ‘아니요’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아니야, 아니오, 아니네’와 ‘아니, 아니요’는 다른 次元의 문제라고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의 현상을 論據로 적용해서 ‘아니오’를 선택하더라도 어차피 ‘아니오’는 하오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에 ‘-어요’가 결합

한 ‘아니예요’가 이미 해요체로 존재하므로 하오체의 어미가 결합한 ‘아니오’가 해요체의 기능까지 包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通時的인 觀點만을 고려한다면 ‘아니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니야’와 마찬가지로 ‘아니--+오’에서 비롯한 文法化된 ‘아니오’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의 ‘아니오’는 문법화를 겪은 결과, 하오체의 ‘아니오’와는 기능이 다르고 현재의 ‘아니요’와 기능이 동일하다.

(4) ㄱ. 아니--+오 → 아니오(문법화 이전) → 아니오(문법화)

ㄴ. 아니+요 → 아니요

‘아니오’는 ‘아니야’를 비롯하여 ‘아니-’의 어간에 相對敬語法의 종결 어미가 결합하는 일련의 형태와 형성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하오체의 ‘아니오’에서 문법화가 되어 ‘해요체’ 이상으로 쓰이게 된 문법화의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하오체’, ‘해요체’, ‘하십시오체’ 형태 중에서 ‘하오체’의 어미만이 문법화가 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문법화 이후, ‘하오체’의 ‘아니오’와 문법화된 ‘아니오’가 둘 다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또한 밝혀야 한다.

이에 비해 ‘아니요’는 ‘아니’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만 ‘아니야’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형태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니요’가 ‘아니야, 아니네’ 등 다른 相對敬語法 등급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糾明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아니요’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Ⅲ. ‘아니요, 아니예요’, ‘아니, 아니야’의 敬語法上的 特徵

3.1. ‘아니요’와 ‘아니예요’의 용법과 기능

‘아니요/아니오’는 위사람의 물음에 대답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¹⁾ ‘예’에

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니요’가 실려 있고 『우리말큰사전』에는 ‘아니오’가 실려 있는데 두 사전의 뜻풀이는 동일하다.

상대되는 말이므로 ‘해요체’ 이상으로 待遇해야 하는 상대에게 사용하고 下待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ㄱ. 아니요, 가 볼 테가 있어요. <오정희, 「적요」>

나. 아니요, 어머니는 살았을 땀니다 <홍명희, 「임꺽정」>

위의 예를 보면 ‘아니요’는 ‘해요체’, ‘합쇼체’가 사용되는 상황에 모두 나타난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해요체’와 ‘합쇼체’를 섞어서 쓰는 것이 가능하므로 (5나)과 같이 ‘아닙니다’가 나타날 자리에도 ‘아니요’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아니에요’도 나타날 수 있어서(아니에요, 가 볼 테가 있어요) ‘아니에요’와 ‘아니요’는 敬語法의 등급이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둘은 範疇上으로 차이가 있다. ‘아니에요’는 ‘아니-’에 ‘-어요’가 결합한 統辭論的 구성이고 ‘아니요’는 한 단어로 굳어진 形態論的 구성이다. 따라서 ‘예’의 상대어로는 ‘아니요’가 자연스럽고 ‘아니에요’는 그렇지 않다.

(6) ㄱ.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나. 다음 물음에 ‘예, 아니에요’로 답하십시오.

이러한 점에서 ‘아니요’와 ‘아니에요’는 서로 존재하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아니요’가 ‘아니’와 같은 차원에 존재한다면 ‘아니에요’는 어간 ‘아니-’에 相對 敬語法의 종결 어미가 결합한 ‘아니다, 아닐세, 아니네, 아니오, 아닙니다’와 같은 차원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²⁾

‘아니요’와 ‘아니에요’는 다음과 같이 기능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7) ㄱ. 점심 먹었어?

나. 아니요/아뇨, 아직 안 먹었어요.

ㄷ. 아니에요, 아직 안 먹었어요.

2) 보조사 ‘요’는 기원적으로는 ‘하오체’의 ‘이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종의 ‘小文章’과 결합한다는 논의가 있지만(고광포 2000) 공식적인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다.

‘점심 먹었어?’라는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니에요’로 대답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는 ‘아니요’와 ‘아니에요’의 문법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요’는 ‘예’의 상대어로 이미 감탄사로 굳어진 말이지만 ‘아니에요’는 ‘X는 Y가 아니에요’와 같은 統辭的 構成이다. 감탄사 ‘아니요’는 이미 문법화되어 문장 내의 다른 요소와 統辭的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의미 또한 물음의 내용에 대한 眞僞 與否만을 표시한다. 이에 비해 ‘아니에요’는 ‘X는 Y가 아니에요’의 통사적 구성으로 물음에 대한 단순한 진위 여부를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를 담도록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7)의 ‘밥 먹었어?’라는 물음에 ‘아니에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밥 먹었어?’는 물음의 내용에 대한 眞僞 與否만을 요구하는데 ‘아니에요’는 의미상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로 부적절하게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되물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보여 준다.

(8) 철수: 점심 먹었어?

영희: 아니에요

철수: 밥 먹었냐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의 구조는 ‘아니다’가 지닌 否定의 의미에 ‘X는 Y가 아니다’의 ‘X는 Y가’라는 細部 事項을 明示함으로써 화자가 否定하고 있는 대상과 내용을 좀 더 具體化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화자가 命題에 대한 부정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당하다. ‘아니에요’가 ‘아니요’에 비해 화자의 일정한 見解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7)의 물음에 ‘아니에요’로 대답하는 것이 어색한 것은 단순한 可否를 묻는 질문에 화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의 예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9) ㄱ. 271번이 창덕궁에 가나요?

ㄴ. 아니요, 272번이 가요.

ㄷ. ?아니에요, 272번이 가요.

위는 271번 버스가 창덕궁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사실만을 제공하면 되는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물음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見解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ㄱ. 271번이 창덕궁에 가지요?

ㄴ. 아니요, 271번은 가지 않아요.

ㄷ. 아니에요, 272번이 가요.

이는 질문자가 이미 271번이 창덕궁에 간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화자는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傳達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대의 확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說得하기 위해 일정한 意見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니에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271번은 창덕궁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272번이 가요.

‘아니에요’로 대답할 경우 (11)과 같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2ㄴ)보다 (10ㄷ)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2) ㄱ. 271번이 창덕궁에 가지요?

ㄴ. ?아니에요, 271번은 가지 않아요.

(12ㄴ)과 (10ㄷ)을 비교할 때 (12ㄴ)의 受容性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11)처럼 ‘(271번은 창덕궁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를 前提하고 있어서 또 ‘271번이 가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剩餘的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10ㄷ)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화자가 ‘아니요’로 대답할지, ‘아니에요’로 대답할지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認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0)은 둘 다 가능한 경우로 화자가 단순한 可否의 질문으로 인식할 경우 (10ㄴ)처럼 ‘아니요’만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질문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한 경우에는 화자 또한 단순한 가부의 대답만을 하기가 어렵다.

(13) ㄱ. 창덕궁에 가야 하니까 271번 타자.

ㄴ. *아니요, 272번 타야 해요.

ㄷ. 아니에요, 272번 타야 해요.

위는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아니에요’만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는 물음에 대한 질문자의 확신이 아주 강해서 화자가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判斷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可否만을 나타내는 ‘아니요’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아니요/아니에요’와 관련된 화자의 판단이 늘 明白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아니요/아니에요’의 경계를 확실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요/아니에요’가 둘 다 허용되는 아래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14) ㄱ. 점심 같이 먹을래?

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ㄷ.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처럼 ‘아니요’와 ‘아니에요’가 모두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화자의 主觀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아니요’만으로 대답하더라도 위의 밑줄 친 부분처럼 후행하는 문장에서 내용을 보충하기 때문에 意味上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요’와 ‘아니에요’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니요’가 별도로 존재하는 形式이라는 앞선 假定을 뒷받침해 준다. ‘아니요’가 ‘아니네, 아닐세, 아

합니다’ 등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언어 현실에서 可否를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상황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가부만을 표시하는 상황이라면 가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시하는 간단한 형식이 편리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달한 형태가 ‘아니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니야, 아니네, 아니에요, 아닙니다’와 같은 일련의 형식이 존재하다가 필요에 의해 ‘아니요’가 생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 ‘아니’와 ‘아니요’의 用法과 技能

‘아니요’가 相對敬語法의 등급으로 ‘해요체’ 이상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言及한 바와 같다. ‘아니요’가 ‘해요체’ 이상이라는 것은 ‘요’가 결합한 말이 ‘해요체’, ‘합쇼체’의 문장에서 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³⁾

- (15) ㄱ. 늦는다니 일이 많은가 보구나?
 나. 아니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 (16) ㄱ. 이 일을 혼자 하긴 힘들겠지?
 나. 그럼요, 혼자서는요 어렵없습니다.

이처럼 ‘아니요’는 해요체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해요체 이상의 문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아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7) ㄱ. 아니, 그렇지 않아. 숙희, 정말 그렇지 않아.” 하고 그는 진심으로 변명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장신재, 젊은 「느티나무」>
 나. 아니, 그런 사람 모르요.” 가볍게 대답하고 걸음을 다시 이어 놓았으나 <장용학, 「원형의 전설」>
 ㄷ. 아니, 그대로 계시오 군의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문열, 「영웅시

3) ‘요’가 나타난다고 모두 ‘해요체’는 아니다. 예컨대 ‘누구요? 누가 찾아온 거요?’는 ‘하요체’이다. ‘해요체’라면 ‘누구예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가 된다.

대」>

ㄹ. 아니, 그런 때문에 아녜요 하고 윤희는 말투를 가누었다. <선우휘, 「깃발 없는 기수」>

ㄱ.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도선이 완강히 부인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위의 예를 보면 ‘아니’는 각각 ‘해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에서 나타난다. 이는 ‘아니’가 이미 문법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敬語法에 따라 制約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⁴⁾

‘아니요’ 또한 ‘아니’와 유사하다. 다만 ‘아니요’는 ‘해요체’ 이상이라는 敬語法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특별한 標識가 없는 ‘아니’와는 달리 ‘아니요’가 ‘해요체’의 표지를 갖게 됨으로써 ‘해요체’ 이상에 쓰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요체’의 표지가 드러나면서 ‘해요체’ 이하로는 쓰일 수 없게 되었지만 ‘아니’와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敬語法 제약을 받지 않는 屬性이 남아서 ‘합쇼체’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처럼 ‘아니’와 ‘아니요’가 形態論的인 면에서뿐 아니라 敬語法의 사용 면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은 ‘아니’, ‘아니요’가 하나로 묶일 것이라는 앞에서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아니요’와 ‘아니예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아니, 아니요’와 ‘아니다, 아닐세, 아니네, 아니오, 아닙니다’가 별도의 범주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3. ‘아니요’와 ‘아니야’의 관계

‘아니, 아니요’가 동일한 範疇라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4) 그렇다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아니’가 敬語法과 상관 없이 모든 상황에 쓰일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합쇼체의 상황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는 가능하지만 ‘아니’만으로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은 ‘해체, 해라체’일 경우로 한정된다.

5) ‘아니요’ 또한 ‘아니’와 마찬가지로 ‘합쇼체’의 상황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師弟之間, 軍隊나 職場의 上下關係 등 아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대신 ‘아니요’를 쓰기가 어렵다.

야’ 또한 동일한가 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아니야’를 ‘아니, 아니요’와 마찬가지로 문법화된 하나의 단어로 다루고 있다.

- (18) 아니야 「감」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아니’보다 더욱 단호히 부정할 때 쓴다. ¶ 너 그 말 거짓말이지? 아니야, 나는 거짓말 안 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아니야’는 이러한 사전의 처리와는 달리 ‘아니, 아니요’보다는 ‘아니다, 아니에요’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위에서 ‘아니요’, ‘아니에요’에 적용했던 예를 적용해 보면 ‘아니야’는 ‘아니에요’에 더 가깝다.

- (19) ㄱ. 점심 먹었어?
 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ㄷ.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 (20) ㄱ. 271번이 창덕궁에 가?
 ㄴ. 아니, 272번이 가.
 ㄴ. ?아니야, 272번이 가.

- (21) ㄱ. 271번이 창덕궁에 가지?
 ㄴ. 아니, 272번이 가.
 ㄴ. 아니야, 272번이 가.

- (22) ㄱ. 창덕궁에 가야 하니까 271번 타자.
 ㄴ. *아니, 272번 타야 해.
 ㄴ. 아니야, 272번 타야 해.

‘아니야’가 ‘아니에요’와 유사하다는 것은 ‘아니’보다 斷乎한 否定에 쓰인다는 사전의 뜻풀이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斷乎한 부정이란 화자의 견해가 介入한다는 뜻이므로 ‘아니야’가 그러한 解釋의 餘地를 담을 수 있는 통사적 구

성인 ‘X는 Y가 아니야’임을 暗示한다. 사전에서 감탄사로 ‘아니야’를 올리고 있지만 실제의 판단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니, 아니요’를 하나로, ‘아니다, 아니야, 아닐 세...’ 등을 다른 하나로 묶을 수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 논의의 출발이 된 것은 ‘예’에 상대되는 말을 ‘아니오’, ‘아니요’ 중에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예’에 상대되는 말은 ‘아니요’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니오’의 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면에서 文法 記述上 ‘아니요’로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아니요’가 해요체 이상의 敬語法 등급으로 쓰이는 것을 볼 때 해요체의 ‘요’가 드러나는 ‘아니요’가 더 적절하다. ‘아니요’가 해요체 이상으로 쓰이는 것은 후행하는 문장의 敬語法에 제약을 받지 않는 ‘아니’의 속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아니요’의 경우 해요체의 ‘요’가 드러남으로써 ‘해요체’라는 制約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니오’는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니오’는 ‘하오체’의 어미 ‘-오’가 결합한 統辭的 構成인 ‘아니오’와 구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아니요’를 선택할 경우 훨씬 簡潔한 문법 기술이 가능하다. 셋째 동일한 敬語法으로 쓰이지만 기능에 차이가 있는 ‘아니예요’와 비교할 때도 ‘요’가 드러난 ‘아니요’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오’로 표기할 경우 ‘아니예요’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아니’와 ‘아니요’는 敬語法上的 기능에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니’에 ‘요’가 결합하여 ‘아니요’가 형성되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니요’와 ‘아니예요’는 敬語法上으로는 동일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아니요’가 可否의 물음에 대한 단순한 부정을 표시한다면 ‘아니예요’는 화자의 판단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니예요’의 ‘X는 Y가 아니-’의 統辭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감탄사인 ‘아니요’가 단순히 부정만을 표시한다면 統辭的 構成인 ‘아니예요’는 좀 더 細部的인 내용을 明示할 수 있는 통사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화자의 주

관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아니, 아니요’가 하나의 범주로 존재하고 ‘아니다, 아니야, 아닐세, 아니네, 아닙니다……’가 별도의 범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 고광모(2000),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쇼’의 起源과 形成 過程」, <국어학> 36, 국어학회, pp.259~282.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해(1983), 「繫辭論」,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보진재, pp.1~11.
- 남기심(1986), 「‘-이다’ 構文의 統辭論的 分析」, <한글연구> 7, [남기심(1996)에 再録]
- _____(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pp.36~51.
- 박양규(1975), 「尊稱 體言의 統辭論的 特徵」,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pp.83~106.
- 배주채(2001), 「指定詞 활용의 형태 음운론」, <국어학> 37, 국어학회, pp.33~59.
- _____(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서정수(1984), 『尊待法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85), 『현대국어 待遇法 연구』, 개문사.
- 송창선(2008), 「현행 한글 맞춤법의 몇 가지 문제점」,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pp.59~84.
- 안병희(1992), 『國語史 연구』, 문학과지성사.
- 엄정호(1986), 「소위 指定詞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pp.110~130.
- _____(1993), 「‘이다’의 範疇 규정」, <국어국문학> 110, 국어국문학회, pp.317~332.
- 윤석민(1994), 「‘-요’의 談話 技能」, <텍스트언어학> 2, 텍스트연구회, pp.459~483.

- 이승희(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정민·박성현(1991), 「‘-요’ 쓰임의 구조와 기능」, <언어> 16-2, 한국언어학회, pp.361~389.
- 이희자·이종희(2001),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_____(2005), 「‘이다’ 구문의 提示文的 성격」, <국어학> 45, 국어학회, pp.123~127.
- _____(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pp.287~319.
- 정희창(2004), 『국어 준말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0a), 「‘規範, 辭典, 文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pp.235~260.
- 정희창(2010b), 「요/이요의 交替 원리」, <한글 288>, 한글학회, pp.73~89.

■ ABSTRACT

The Grammatical and Honorific Feature of ‘aniyo(아니요) and anieyo(아니에요)’

Jeong, Hui-chang

‘aniyo(아니요)’ is a compound that is composed of ‘ani(아니)’ and ‘yo(요)’. ‘aniyo(아니요)’ is more proper notation than ‘anio(아니오)’ in the respect of honorific level. ‘aniyo(아니요)’ and ‘anieyo(아니에요)’ included same honorific level. But their function is different. ‘aniyo(아니요)’ is lexicalized to interjection in the result of grammaticalization and its function restricted to representation of negation. ‘anieyo(아니에요)’ functions as predicate in the syntactic structure ‘X는 Y가 아니-’ and specified details that contain speaker’s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re are two categories in Korean, one is ‘ani(아니), aniyo(아니요)’ and the other is ‘anida(아니다), aniya(아니야), anilse(아닐세), anine(아니네), aniji(아니지), anilgeol(아닐걸), animnida(아닙니다)…….’

※ Key-words : orthography, honorific, negation, grammaticalization, syntactic structure